

## 트랜스젠더 해방: 때가 된 움직임

*Transgender Liberation: A Movement Whose Time Has Come*. New York: World View Forum, 1992.

레슬리 파인버그(Leslie Feinberg)

백소하 옮김

강건영 감수

*The Transgender Studies Reader*(2006)에 수록된 수잔 스트라이커의 서문:

자신의 특별한 트랜스젠더 존재양식을 드러내기 위해 "s/he"나 "hir"<sup>1)</sup> 같이 성별을 특정하지 않는 대명사를 사용하여, 그것이 지난 10년 간 제한적이거나 널리 쓰이게 한 레슬리 파인버그는 현대 트랜스젠더 연구의 근본이 되는 인물로 고려되어야 한다. 아래 옮긴 그의 영향력 있는 소책자는 (비정치적이고) 오래된 용어인 트랜스젠더를 찾아 새롭고 급진적인 의미를 불어넣었다.

이전까지 “트랜스젠더”는 대개 사회적으로 여성으로 생활하지만, 성기 변형 수술을 거치지 않은 생물학적 남성을 지칭하였다. 파인버그의 재정의에서, 이 용어는 사회 정의의 이름으로 서로와 함께 혁명적으로 합작하기 위해 호출된 억압받는 소수자들(성전환자, 부치 레즈비언, 드랙퀸, 크로스드레서, 그리고 다른 이들)의 “팬젠더”<sup>2)</sup> 운동을 지칭하게 되었다. 이 소책자는 유사하지만 좀 더 감동적으로 파인버그의 삶을 각색한 『스톤 부치 블루스』(*Stone Butch Blues*)에 이념적이고 역사적인 틀을 제공하였다. 해당 소책자는 단행본 길이의 두 후속 논의인 『트랜스젠더 전사들』(*Transgender Warriors*)과 『트랜스-해방: 분홍색과 파랑색을 넘어』(*Trans-Liberation: Beyond Pink and Blue*)로 이어졌다.

광범위의 문화와 역사적 시기로부터 끌어온 여러 사례를 통해 한 명의 마르크스주의자인 파인버그는, 젠더 변이자<sup>3)</sup>들을 향한 현대의 널리 퍼진 억압은 자본주의 생산양식의 효과인 반면, 전자본적 부족 및 농업 사회의 트랜스젠더들은 존경받고 명예롭게 여겨졌다고 주장한다. 그 특유의 역사 이론이 트랜스젠더 공동체에서 넓은 지지를 얻지는 못했으나, 그의 저작은 트랜스젠더들에게 요청하는 강력한 방식, 즉 자신의 역사적 유산을 되찾고, 더 정의로운 사회를 위한 현재의 투쟁에 그 앎을 활용하도록 하는 것에 헌신적이고 고마움을 가득 느끼는 추종자들을 얻게 되었다. 이는 현대 트랜스젠더 이론과 운동의 중요한 시원적 텍스트이다.

1) (역자주) 이후 스트라이커가 파인버그를 지칭할 때 hir를 사용하는데, 여기서는 이를 전부 “그”로 옮긴다. 이는 “그”가 일본어의 인칭 대명사 “彼女”에서 파생된 “그녀”가 보급되기 전까지 성별을 가리지 않고 사용되었던 점에서 착안한다. 같은 이유로 본문의 he와 she 역시 그로 옮기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대명사의 성별이 강조되는 경우에 한해 “그녀”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2) (역자주) pangender. 셋 이상의 젠더를 경험하는 이들을 일컫는 말로 쓰이는 용법으로 유명하나, 여기서는 “all-gender”와 같이 범(凡)젠더, 즉 여러 젠더를 아우른다는 뜻의 형용사로 쓰였다.

3) (역자주) gender-variant people. 젠더 이분법에 제한되지 않는 자기표현을 하는 이들을 지칭한다.

이 소책자는 아직 일반적으로 합의된 이름이 없는 억압의 역사적 발흥을 추적하려는 시도이다. 우리는 여기서 “man”이 만들어낸 젠더의 경계를 거스르는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다.

젠더: 해부학이 아니라 자기표현.

우리는 평생 섹스와 젠더가 같은 뜻이라고, 남성은 “남성적”이고 여성은 “여성적”이라고 배웠다. 분홍색은 여자애들 것이고 파란색은 남자애들 것이라고. 그게 “자연스러운” 거라고, 우리는 익혔다. 하지만 세기의 전환기에 이 나라에서, 파란색은 여자애들의 색이고 분홍색은 남자애들의 색이라고 여겨졌다. 단순화되고 뻗뻗한 젠더 규범은 영원하지도 자연스럽지도 않다. 이는 변화하는 사회적 관념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남성적으로” 여겨지는 남성들이나 자기표현이 “여성적”이라고 여겨지는 것들의 범위에 속하는 여성들에게 아무런 잘못은 없다. 문제는 이 좁은 사회적 제약에 맞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온갖 고충과 폭력을 마주한다는 데 있다.

이는 질문을 불러일으킨다. 무엇이 “표준”이 되어야 할지 누가 정했나? 왜 어떤 사람들은 자기표현으로 인해 처벌을 받는가?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은 원시 공동 사회가 트랜스젠더화된<sup>4)</sup> 이들을 높이 공경했음을 알면 놀랄 것이다. 신흥 지배 계급은 자연스럽게 여겨지던 것이 그 반대라고 선포하기 위해 피비린내 나는 사회운동을 벌여야 했다. 지배 엘리트층이 사회에 떠민 편견은 지금도 건재하다.

그러나 맞아떨어지지 않는 것에 지독한 사회적 처벌이 따르는 사회에서조차, 인구의 상당부는 자신의 본성을 바꿀 수 없거나 바꾸려 하지 않는다. 여성과 남성이 존재할 다양한 방식이 있음은 자명하다. 자연의 모든 것은 연속체다.

우리를 묘사하는 어휘의 대부분은 베고 지지는 말들이다.

내가 십 대 때 버팔로의 공장에서 처음 일할 때, 나같은 여자들은 “남자 같은 여자들”(he-shes)이라고 불렸다. 공장의 “남자 같은 여자들”은 대개 레즈비언이었지만, 우리는 성적 지향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젠더를 표현한 방식으로 인식되었다.

넓은 범위의 “젠더 무법자들”을 표현하는 데 쓰이는 다른 말들도 있다. 의상도착자<sup>5)</sup>, 성전환자, 드랙퀸과 드랙킹, 크로스드레서, 불대거, 스톤 부치, 안드로진, 디젤 다이크 혹은 베르다

---

4) (역자주) 원문은 “transgendered”. 파인버그가 transgendered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방식은 근래 transgender를 사용하는 방식과 다르다. 예컨대 transgender man이 남성으로 향하는 방향성을 지시한다면, 본문에서 transgendered man은 지정성별이 남성임을 가리킨다. 본문의 내용으로 미루어 볼 때 파인버그가 transgendered라는 표현으로 단순히 수동성이나 구조적 측면을 강조한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최근에 사용되는 “transgender”의 용법과는 다르기에 이렇게 옮긴다.

5) (역자주) 본문에서 “transvestism”, “transvestite”는 전부 “의상도착”, “의상도착자”로 옮겼다. 이는 transvestism이라는 단어가 transsexualism과 마찬가지로 병리적 규범과 규범 외부의 정체성 및 실천을 동시에 의미하는 이중적인 의미를 전하기에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하여서이다. 마찬가지로 이유로 “transsexual”은 성전환자로 옮겼다.

쉬) — 유럽 제국주의적 명칭이다.

우리는 이런 말을 고르지 않았다. 이 말들은 우리 모두에게 맞지 않는다. 자긍심을 함축하는 이름, 우리를 명예로이 여기는 언어 없이 억압에 싸우는 건 어렵다.

근 수년, 간혹 젠더 혹은 트랜스젠더 공동체라고 불리는 한 공동체가 대두되기 시작했다. 우리 공동체 안에는 서로 다른 수많은 방식으로 스스로를 정의하는 다양한 일군의 사람들이 있다. 트랜스젠더화된 이들은 우리 자신의 자기 정의를 선택할 권리를 요구하고 있다. 이 소책자에 쓰인 언어는 젠더 공동체가 연합하고 조직되면서 빠르게 구식이 되어버릴지도 모른다. 신이 나는 문제다.

우리는 이 소책자에 쓰인 말들이 편견과 잔학 행위에 맞서 싸울 도구로, 이 나라의 노동하고 억압되는 사람들의 대다수에게 이해될 수 있기를 바라며 골랐다. 우리는 얼마나 불충분하든 간에, 우리를 연결하고 우리가 견디는 억압에서 비슷한 것을 포착할 수 있는 말들을 찾으려 한다. 또 우리는 두 성별만을 허용하는 언어에서 명확함과 감수성을 찾으려 애쓰며, 대명사를 사용하는 방식에 깊이 고민하였다.

거대한 사회적 움직임은 공통의 언어, 뻗어나가 더 넓은 이해를 얻으려는 도구를 주도한다. 그러나 우리는 진보적 운동에서 주로 차단되었다.

현대 레즈비언 및 게이 운동을 낳은 뉴욕시 스톤월 주점에서 벌어진 1969년의 항쟁<sup>6)</sup>을 이끈 것은 게이 의상도착자들이었다.

그러나 레즈비언 및 게이 운동이 함께 어깨를 맞대고 투쟁하는 게 변화를 향한 더 강력한 힘을 만들어낼 것이라고 진보적 운동을 설득해야했던 만큼, 트랜스젠더화된 공동체도 레즈비언 및 게이 운동에 동일한 설득을 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많은 사람들은 모든 “남성적인” 여자가 레즈비언이고 모든 “여성적인” 남자가 게이라고 생각한다. 이는 오해다. 모든 레즈비언 및 게이 “가로질러” 젠더화된(cross-gendered) 것은 아니다. 모든 트랜스젠더화된 여성 및 남성이 레즈비언이거나 게이이지는 않다. 트랜스젠더화된 이들은 레즈비언 및 게이 공동체의 끄트머리로 오해받는다. 이 거대한 두 공동체는 실제로는 일부 겹칠 뿐인 원과 같다.

이 두 개의 강력한 공동체 내의 억압은 같지 않지만, 우리는 공통의 적을 마주한다. 인종차

---

6) (역자주) berdache. 여러 아메리카 선주민 문화에서 기존의 성별이분법을 벗어난 의례적 역할을 맡은 인물들을 칭하던 표현. 하지만 남성 동성애 관계에서 수동적인 쪽을 지칭하던 불어 bardache와의 연관성, 서구 인류학의 식민적 명명법이라는 지적 등을 이유로 1990년 캐나다 위니펙에서 일어난 동성애자 선주민 집회에서 two-spirit이라는 표현으로 대체된다.

7) (역자주) 스톤월 항쟁(Stonewall Rebellion). 1969년 6월 28일 경찰이 뉴욕 그리니치 빌리지의 술집 ‘스톤월 주점(Stonewall Inn)’을 습격해 성소수자들을 물색하고 체포하자, 이에 반발한 이들이 저항하면서 벌어졌다. 경찰과의 직접적인 충돌에서 언론과의 소통에 이르는 다양한 사건이 전개되었고, 이후 성소수자 운동 단체의 설립 및 퀴어 퍼레이드 개최를 이끌었다.

별주의, 성차별주의 그리고 레즈비언 및 게이 남성을 향한 편견과 같이, 젠더공포증은 우리를 갈라두려 한다. 통합은 우리의 힘을 오직 늘릴 뿐이다.

단결은 억압이 어떻게, 왜 존재하며 누가 그로부터 이득을 보는지에 관한 이해에 기초한다. 인간 사회의 혁명적 변화가 불평등, 편견, 그리고 불관용을 끝낼 수 있다는 게 우리의 견해이다.

그러한 투쟁의 움직임은 만들고자 하는 정신에서, 우리는 역사의 회전모형, 칭송을 받건 비난을 받건, 베르다쉬의, 트랜스젠더화된 이의 길을 걸어가던 여남의 공통성에 관한 견해를 내놓는다.

우리를 보라. 우리는 생존을 위해 싸운다. 들어라. 우리는 들리기 위해 몸부림친다.

## 트랜스젠더는 억압에 선행한다

재즈 음악가 빌리 팀튼(Billy Tipton)은 1989년에 향년 74세로 숨졌다. 그는 자신의 음악보다 여성으로 태어났다는 폭로 때문에 기억될 것이다. 팀튼은 병원에 가서 이 사실이 알려질 일을 각오하는 대신 출혈성 궤양을 치료하지 않아 죽었다.

그의 죽음 이후 논쟁이 시작되었다. 팀튼은 그저 남성지배적 업계에서 뮤지션으로 일하기 위해 음악가로 일하기 위해 남자로 살았나, 아니면 레즈비언 억압 때문에 남자로 살았나?

여성 억압, 특히 자본주의 하에서의 여성 억압은 여성이 생존을 위해 남성으로 패싱하도록 강제하는 공고한 사회적이고 경제적인 압박을 만들어냈다. 그러나 이러한 논거는 트랜스젠더화된 여성, 그 안에서 극심한 고충과 위험을 견뎌야 하는 계급 사회에서 너무도 “남성적”이라고 여겨지는 여성을 배제한다. 이러한 여성의 많은 수가 살기 위해 “패싱하도록” 강제된다. 물론 많은 트랜스젠더화된 여성은 경제적 불공정, 그리고 많은 경우 반(反)레즈비언 억압이라는 뼈저린 부담을 짊어진다. 이러한 요인은 트랜스젠더화되지 않은 여성뿐 아니라 “남성적인” 여성도 패싱하도록 강제하는 역할을 한다.

“남성적인” 여성이 조금이나마 인지되더라도, 이들이 퇴폐적인 가부장제 자본주의의 산물에 불과하며 진정한 평등이 성취될 때 이들이 사라질 것이라는 점이 암시된다.

## 새로운 건 “패싱”이다

트랜스젠더화된 여남은 언제나 여기 있었다. 이들은 억압당한다. 그러나 이들이 그저 억압의 산물인 것은 아니다. 역사적으로 새로운 것은 **패싱**이다. 패싱은 숨는 것을 뜻한다. 패싱은 비가시성을 뜻한다. 트랜스젠더화된 이들은 자신의 젠더를 폭력의 위협이나 비난 없이 살고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오늘날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셀 수 없이 많은 여남의 자기표현은 할리우드의 정형(定型)을 기준으로 평가할 때 자신의 성별과 “맞지 않는다.” 일부는 이들이 겪는 탄압과 추방 탓에 수면 아래로 사라지거나 “패싱” 하도록 강제된다.

현재 모든 젠더 교육은 여성은 “여성적”이고, 남성은 “남성적”이며, 이 두 독 사이에 함부로 건널 수 없는 강이 거세게 몰아치고 있다고 가르친다. 여남이 자신을 수없이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트랜스젠더는 억압보다 이전에 비롯된, 인간 표현의 매우 오래된 형태이다. 한때는 명예롭게 여겨졌다. 분할 통치 전술에 기대는 착취 계급이 사회를 지배하지 않을 때, “가로질러 젠더화된” 청년, 여남이 모든 대륙에서 자기 공동체의 존중받는 일원이었다는 건 인류 역사를 훑기만 해도 증명된다.

## “저 여자는 남자요”

1850년에 이 대륙[북아메리카]의 크로우족(Crow: Apsáalooke)에 관해 저술한 한 백인 남성은 이렇게 쓴다. “이상한 곳이다. 여기 남성은 드레스를 입고 여성의 일을 하고, 여인은 사내가 되어 자신의 성별과 짝짓는다.”

현대 단체인 ‘게이 아메리카 인디언’(Gay American Indians)의 창립자 랜디 번즈(Randy Burns)는 ‘GAI 역사 프로젝트’가 135개의 북아메리카 원주민 부족에 걸쳐 여남의 이러한 대안적 역할들을 기록했다고 적는다.

이 대륙의 원주민 사회에서 트랜스젠더화된 남성과 여성의 높은 출현율은 이들을 **베르다쉬**로 명명한 식민주의자들에 의해 기록되었다.

가장 눈에 띄는 베르다쉬 원주민 여성은 북부 미주리 부족 사상 가장 유명한 전쟁 지도자인 크로우족 “여인 추장” 바치암프(Barcheeampe: Bíawacheeitchish)이다. 그는 여러 아내와 혼인하였고 사냥꾼이자 전사로서 그의 용맹함은 여러 노래가 찬미하였다. 크로우족 대표자 모임이 열리면 그는 추장들 가운데에서 자기 자리를 차지했는데, 이는 천막 160개를 아우르는 무리에서 셋째였다.

오늘날 트랜스젠더는 “반사회적” 태도로 간주된다. 그러나 클라마스족(Klamath) 공동체는 트랜스젠더화된 여성에게 특수한 통과 의례를 열어주었다.

에드워드 기포드<sup>8)</sup>가 적은 바로는, 코코파족(Cocopah)의 “여성 의상도착자들은 와르 하메(war hameh)라고 불리며, 사내 같이 머리를 하고 코를 뚫었고, 여인과 결혼하고 사내들과 나

8) (역자주) Edward Gifford(1887~1959). 캘리포니아 지역 선주민을 연구한 민족지학자.

란히 전투에서 싸웠다.”

남자로 태어난 유명한 주니족(Zuni) 베르다쉬 위와(Wewha)는 1849년에 태어나 1896년에 죽었다. 그는 주니족 가운데 가장 키가 크고 힘이 셸다. 주니족 사람들은 질문을 받을 때면 “저 여자는 남자요”라고 말했다. 주니족은 위와를 6개월간 워싱턴에 보냈고, 그는 그가 베르다쉬임을 알지 못한 그로버 클리블랜드 대통령과 다른 정치인들을 만났다.

남자로 태어난 크로우족 베르다쉬 혹은 바데<sup>9)</sup>인 오쉬-티쉬(Osh-Tisch, 찾아 죽인다)는 로즈버드 전투<sup>10)</sup>에서 싸웠다. 식민 대리인이 오쉬-티쉬에게 남성복을 입히려고 강요하자, 다른 원주민들은 그의 본성과 맞지 않는 일이라며 따지고 대리인을 자신들의 땅에서 쫓아냈다. 이들은 바데의 천성을 바꾸려 드는 것은 슬픈 일이라고 하였다.

1670년대에 한 예수회 수사는 베르다쉬를 관찰하였다. “그들은 ‘대표자 모임’에 호출되었으며, 그들의 조언 없이는 어느 하나 결정될 수 없었다.”

그러나 선교사들과 식민주의 군대는 이 반구(半球)의 원주민 베르다쉬에 살인적인 적의를 띠고 반응하였다. 많은 베르다쉬는 기독교도 지배자들에 의해 고문당하고 산채로 불타 죽었다. 다른 식민 군대는 베르다쉬에게 들개를 풀어버렸다.

## 왜 그리 적대적인가?

왜 유럽 식민주의자들은 트랜스젠더화된 여남에게 그리도 적대적이었는가? 그 답은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라는 발달하는 계급 사이에서 격화되던 유럽 대륙의 갈등에서 찾을 수 있다.

유럽 대륙의 원시 사회는 공동체적이었다. 기원전 2만 5천 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수천 점의 유물 발굴은 이 사회들이 남신들이 아니라 여신들을 숭배했음을 증명한다. 일부 신은 트랜스젠더화되었고, 많은 무당과 종교 대표자도 마찬가지였다.

우리는 지금의 방식이 언제나 그랬던 것과 거의 같다고 배웠다. 이를 인류학의 “고인돌 가족 플린스톤”<sup>11)</sup> 학파라고 할 수 있겠다. 확고한 교훈은 사람들을 바꾸려 들지 말라는 거다. 그러나 역사를 훑어 보기만 해도 인류 사회가 지속적인 발달과 변화를 겪었음이 입증된다.

고대 사회의 여성의 역할에 관한 대논쟁이 150년도 넘게 맹렬하게 펼쳐졌다. 제시 험즈<sup>12)</sup>

---

9) (역자주) badé. 크로우족에서 남성 신체로 태어나 일상에서 여성의 역할을 수행하는 이들을 일컫는 표현이다.

10) (역자주) Battle of the Rosebud. 1876년 수족 대전쟁(Great Sioux War of 1876) 중 6월 17일에 벌어진 전투로, 이 전쟁에서 압살룩족은 미국, 쇼숀족과 연합해 라코타족과 북부 샤이엔족을 상대했다.

11) (역자주) The Flintstones(1960~1966). 석기 시대에 사는 주인공 가족을 통해 현대적인 일상사를 다루는 미국의 애니메이션 시트콤.

12) (역자주) Jesse Alexander Helms Jr.(1921-2008). 미국의 정치인으로, 1973년부터 2003년까지 공화당 소속으로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의 상원의원을 지냈다. 인종차별과 성소수자 차별에 진력한 극우주의자로 유명하다.

및 그 동류가 호통치는 걸 듣고 있다면, 가부장제 핵가족이 언제나 존재했다고 생각하게 된다. 이는 사실이 아니다.

20세기의 인류학자들은 사회 발달의 초기 단계에 모계 공동 사회가 전 세계에 존재했다고 인정했다. 여성은 현대의 “가족”과 별로 닮지 않은 씨족 혹은 부족의 우두머리였다.

그러나 많은 이들이 모계 사회가 여성의 예측과 공존할 수 있고, 역사상 어떤 문화도 여성이 지속적으로 요직을 맡았다는 공인된 기록을 남기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이는 남성지배와 사유재산 사이의 관계를 무시하며, 여성의 억압이 그저 “인간 본성”의 결과임을 암시한다.

이 이념적 주장은 감옥만큼이나 계급투쟁의 무기이다.

로잘린드 카워드<sup>13)</sup>는 저서 『가부장제의 선례』(*Patriarchal Precedents*)에서 이 논쟁에 매우 유용한 개요를 제공한다. 카워드는 대부분의 19세기 유럽 학자들이 가부장제 핵가족과 남성 상속이 보편적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세기의 후반부, 남인과 서남아시아를 연구한 유럽 식민주의자들은 그 시각을 반박하였다.

1861년, 요한 바호펜<sup>14)</sup>은 진화하는 사회적 기관으로서의 가족에 관한 과학적 연구인 그의 유명한 저서 『모권』(*Das Mutterrecht*)을 출간하였다. 그의 작업은 현대 인류학에 핵심적인 공헌으로 여겨진다.

위대한 민족학자이자 인류학의 창시자 가운데 하나인 루이스 헨리 모건(Lewis Henry Morgan)은 1887년에 주요 저서이자 여성에 기초한 친족제도를 지닌 공동 사회에 관한 철저한 연구, 『고대사회』(*Ancient Society*)를 저술하였다. 그는 이 [북아메리카] 대륙의 하우데노사우니(이로쿼이 연맹, Haudenosaunee/Iroquois Confederacy)와 인도 및 호주의 수많은 선주민을 연구하였다. 사회 진화에 관한 그의 연구는 가족의 가부장제적 형태가 인간 사회에서 가장 오래된 형태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였다.

바호펜, 그리고 특히 모건의 연구는 프리드리히 엥겔스(Frederick Engels)의 위대한 1884년도 고전, 『가족, 사유재산, 국가의 기원』(*Origin of the Family, Private Property and the State*)의 토대가 되었다. 엥겔스는 초기 사회가 집단노동과 공동소유에 기초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집단적 생존을 위해 협동은 필수적이었다.

과학적 사회주의의 원칙을 개발하는 데 있어 칼 맑스의 주요 공저자인 엥겔스는 이 고대사회들이 압제적인 국가 기구, 대규모 전쟁, 노예제도, 핵가족의 흔적을 보여주지 않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엥겔스와 맑스는 모건의 연구를, 현대 여성의 억압이 재산의 사적 소유에 근거한 계급으로의 사회 분열에 기초해 있다는 증거로까지 인식하였다. 억압이 초기 공동 사회의 특

13) (역자주) Rosalind Coward. 기자이자 작가로, 페미니스트 쟁점이나 문화 기호학에 관한 저술 및 기고로 알려져 있다. 현재까지도 『가디언』 지에 기고를 계속하고 있다.

14) (역자주) Johann Jakob Bachofen(1815~1887). 스위스의 인류학자, 법학자, 문헌학자. 선사 모권제에 관한 연구로 유명하며, 모권제에 관한 20세기의 이론들에 크게 영향을 미쳤다.

성이 아니었다는 사실은 사회화된 소유를 위한 사적 소유의 전복이 인간관계를 변혁할 기틀을 다지리라는 예상을 뒷받침해주었다.

이번 세기의 연구, 특히 여성에 의해 수행된 연구는 여성이 언제나 “열등”하다고 간주되었다는 관점을 논파하였다. 마리아 김부타스<sup>15)</sup>와 거다 러너<sup>16)</sup>의 폭넓은 연구는 기원전 4500년 이전, 유럽과 서아시아 전역에서 남신들이 아니라 여신들이 숭배되었음을 밝혀냈다.

자케타 후스<sup>17)</sup>가 『인류사』(*History of Mankind*)에서 끝맺듯이, “전기 신석기 생활 양식의 조건 하에서, 어머니-밤과 씨족이 아직 지배적이었고, 땅은 대개 여계(女系)로 전래되었다고 가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다. 실로, 초기 신석기 사회는 여성이 지금껏 알고 있는 것 가운데 가장 높은 지위를 그 시공간 범위 내내 여성에게 주었다.” (1963년에 글을 쓰고 있는 이 진보적인 여성 연구자가 아직 인류를 서술하기 위해 “mankind”라는 말을 써야 한다고 여긴다는 점에 주목하는 것은 흥미롭다.)

## 편견의 시작

유라시아와 북동아프리카의 풍요로운 하곡(河谷), 기원전 4500년부터 기원전 1200년까지의 시기 즈음, 인간의 노동은 더욱 생산적이게 되었고 넉넉함은 부로 축적되었다. 오래된 공동체 제도는 서서히 그리고 모르는 사이 변화하였다.

어마어마한 사회적 변화가 일어났다. 남성 후계자에게 부를 넘겨주려는 욕망은 아내의 단혼제를 요구하였다. 가부장제 가족은 사회의 새로운 경제적 단위가 되었다.

그러나 트랜스젠더화된 남녀와 동성 간 사랑에 원시 공동 사회가 바친 공경은 이 사회들이 극적인 변화를 겪고도 오랫동안 지속되었다.

예를 들어, 수염 난 여왕 하트셉수트가 파라오의 의복을 입은 이집트 조각품(기원전 1485년)은 힘과 지혜의 신성한 상징으로서 수염 난 여성에 관한 유명한 민속이 지속되었음을 보여 준다.

의상도착과 종교 관습 사이의 연관은 그리스의 신과 영웅에 관련된 고대 신화에서도 발견된다. 아킬레우스 신화는 그가 무예를 익히기 전에 스키로스에서 리코메데스의 궁전에서 여성으로 살고 여성의 복식을 하였다고 전한다.

“마크로비우스<sup>18)</sup>는 남성 사제들이 키프로스의 수염 난 아프로디테를 기리고자 여성의 복식

---

15) (역자주) Marija Gimbutas(1921~1994). 리투아니아 출신의 고고학자로, 각종 고대 유물 발굴에 참여해 선사시대 여신 문명의 존재를 입증하고 여신학의 토대를 닦았다.

16) (역자주) Gerda Hedwig Lerner(1920~2013). 오스트리아 출신의 미국 사학자로, 여성사를 처음으로 강의하고 학술적 분야로 정립하였다.

17) (역자주) Jacquetta Hawkes(1910~1996). 영국의 고고학자로, 미노스 문명이 여성에 의해 통치되었다는 선구적인 주장을 하였다.



을 하였다고 전한다. 같은 섬에서, (본래 다산 숭배였던) 아리아드네 숭배는 사내아이가 여자의 옷을 입고 산고(産苦)와 출산의 증세를 연기하는 의식으로 특징지어졌다.” (『차려입기』 (Dressing Up))

헤로도토스는 스키타이 종교의 무당들이 여성처럼 말하고 여성의 복식을 하였으며 높이 존경받았다고 한다. 에페소스의 아르테미스 사제들은 “여자의 옷”을 입었다고 전해진다. (『차려입기』)

“사내들은 로마에서 헤라클레스 의식에 참여하기 전에 차려입어야 했다(헤라클레스 자신은 리디아의 여왕 옴팔레의 궁정에서 여성의 복식을 하고 삼 년을 보냈다). (….) 포도 수확제인 아테네 오스코포리아에서, 두 사내아이는 행진에서 여자 옷을 입고 포도나무 한 줄기를 들었다. 아르고스의 축제 히브리스티카에서는 남성들이 여성복을 입었다. 사모스의 헤라 축제에서는 남성들이 길고 흰 로브를 입고 머리에 금색 망을 썼다.” (『차려입기』)

새로운 경제 체제를 “정당화”하고 집단적으로 살며 일한 사람들의 기를 꺾기 위해, 여성 지위의 구조적 격하와 트랜스젠더화된 인구를 향한 공격이 시작되었다.

트랜스젠더에 대한 초기의 금지령은 최초의 가부장제 사회 가운데 하나인 히브리 민족의 모세 율법에 성문화되어 있다. “여자는 남자의 옷을 입지 말고 남자는 여자의 옷을 입지 말라. 이런 짓을 하는 자는 모두 너희 하느님 야훼께서 역겨워하신다.” (『신명기』, 22:5)

기원전 8세기에서 6세기 동안의 그리스 도시국가의 발흥은 여성 예측의 다른 사례이다. 새로운 가부장제적 경제 체제는 모계와 공존할 수 없었다. 그러나 많은 영역에서 트랜스젠더, 동성 간 사랑, 그리고 의상도착이라는 오래된 종교 관습 다수는 새로운 지배 질서를 위협하지 않았기에 계속해서 융성하였다.

노예 소유자들은 사회에서 여성 평등을 전복하는 것을 정당화하기 위해 여성을 비하하는 이념을 개발하였다. 초기 그리스 신화의 다수와 아마존 전사에 대항하는 전투를 다룬 미술품의 수많은 묘사는 모계 공동 사회의 타도와 가부장제 노예 사회로의 대체를 상징한다.

그리스 신 디오니소스와 같은 가부장제의 신은 전(前)계급적 여신을 제압하기 위해 생겨났다. 디오니소스는 여신 숭배를 대체한 그리스 신들 가운데 하나이다. 그러나 그리스의 화가와 작가들은 디오니소스를 여성적이거나 여성의 의류를 입은 것으로 묘사했다. 의상도착은 디오니소스의 제의(祭儀)에서도 지속되어, 기독교가 지배 계급의 국교가 된 뒤까지도 남아있었다.

여성을 향한 태도는 트랜스젠더화된 남성을 향한 지배 계급의 점증하는 적의를 부분적으로 설명한다. 그러나 “여성적인” 남성, 그리고 특히 디오니소스에 반대하는 운동의 다른 측면은 나치의 전쟁 기구나 오늘날 펜타곤이 “남성성”에 극단적으로 호소하는 것과 같은 람보 정신을 만들었을 수도 있다. 이들은 “확장하거나 죽거나”인 군국주의 사회였다. 전쟁의 신 아레스와

---

18) (역자주) Macrobius Ambrosius Theodosius. 5세기 초반 로마 제국의 지방민으로, 중세 신플라톤 주의, 고대 로마 종교, 그리스어 및 라틴어 동사 등 다양한 주제에 관한 저술 활동을 벌였다.

달리, 디오니소스는 전투에서 병사들이 초소를 저버리도록 부추긴, “전쟁이 아니라 사랑을 하자”는 신이었다.

기독교도 저자인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는 기원후 3세기에 『권고』(*Exhortation*)라는 책을 써, 이교도 그리스인들이 자기 신념의 오류를 자각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누가 돌아다니며 그림과 조각상을 관찰한다면, 그는 단번에 당신들의 신들을 그 수치스러운 묘사에서, 디오니소스를 그의 드레스에서 찾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 트랜스젠더의 불굴

비록 가로질러 젠더화된 표현을 향한 지배적 태도가 바뀌고 있으며 압제적으로 변하고 있었더라도, 트랜스젠더를 향한 원시적인 공격은 근절되기 어려운 것으로 밝혀졌고 트랜스젠더화된 여남은 사회의 모든 계급에 계속해서 존재하였다.

“로마의 황제들은 여성의 의복을 입는 데 호감을 보였다고 보고되며, 수에토니우스<sup>19)</sup>에 따르면 칼리굴라는 여성복을 자주 취하였다고 한다.” (『차려입기』)

그러나 지배적인 계급 압제는 점차 많은 순응을, 심지어 엘리트층 사이에서도 요구했다. 아서 에반스<sup>20)</sup>는 “가장 유명한 사례는 엘라가발루스로 (….) 기원후 218년에 로마의 황제가 되었다. 그는 황제로서 공중 앞에 여장을 하고<sup>21)</sup> 나타났으며, 제례의 성교를 양성 모두의 사람들과 행했고, 그의 남자 애인들 가운데 한 명을 자신의 남편으로 공연히 선언했다. 지배 계급은 격분하였다. 그는 기원후 222년에 분개한 친위대 하나에게 암살당했다. 그의 사체는 훼손되어 로마의 거리에 끌려다녔고, 테베레강에 던져졌다”라고 기록했다. (『마법과 게이 반문화』 (*Witchcraft and the Gay Counterculture*))

기원후 4세기에는 카파도키아의 아마시아 주교<sup>22)</sup>는 사내들이 “긴 로브와 거들, 끌신, 그리고 커다란 가발”으로 크로스드레싱을 하는 정월 초하루의 관습을 규탄하였다. 세비야의 이시도르 주교(기원후 560-636)<sup>23)</sup>는 새해 기념 무용수들을 “그들의 남성적인 얼굴을 여성화하고 여성적인 몸짓을 한다”고 매도하였다.

19) (역자주) 가이우스 수에토니우스 트란퀼루스(Gaius Suetonius Tranquillus, 69?~122 이후). 로마 제국의 역사가. 가이우스 율리우스 카이사르, 그리고 도미티아누스까지 11인의 로마 제국 초창기 황제를 다룬 『황제기』(*De vita Caesarum*; 국역본은 수에토니우스, **풍속으로 본 12인의 로마황제**, 전2권, 박광순 옮김, 서울: 풀빛미디어, 1998.)을 썼다.

20) (역자주) Arthur John Evans(1851~1941). 영국의 고고학자로, 청동기 시대 그리스 문명의 전문가이다.

21) (역자주) 원문의 표현은 “in drag”인데, 현대적인 드랙 문화를 지칭한다기보다는 남성의 여성복 착용을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여장”으로 옮긴다.

22) (역자주) 아마시아의 성 아스테리오스(Saint Asterius of Amasea). 4세기 사람으로, 사제직을 맡기 전까지는 법률가로 지냈으며 스물 한 개의 설교가 전해진다. 여기서 인용되는 것은 「초하루의 축제에 관하여」(“ON THE FESTIVAL OF THE CALENDUS”)라는 설교다. 영역본은 [http://www.tertullian.org/fathers/asterius\\_04\\_sermon4.htm](http://www.tertullian.org/fathers/asterius_04_sermon4.htm)에서 확인할 수 있다.

23) Isidore of Seville. 스페인의 학자이자 사제로, 30년이 넘게 세비야의 대주교를 지냈다. 어원학과 문장 부호의 정립 등 학술적 공헌을 남겼으나, 저술과 교회법으로 유대인 탄압을 강화하였다.

드레스를 입은 신의 숭배는 기독교 지배층을 격분케 하였고 기원후 691년에 콘스탄티노폴리스 공의회<sup>24)</sup>는 다음을 포고하였다. “우리는 그리스인들 사이에서 ‘신들’이라는 틀린 이름으로 불리는 것들에 관한 춤과 통과 의례가 남성에게 의해서건 여성에게 의해서건 기독교적인 생활양식과 반대되는 원시적 관습을 따르기에 금지하고, 우리는 어떤 남자도 여자의 드레스를 입어서는 안 되고 여자도 남자에게 속하는 옷을 입어서는 안 된다고 (...) 포고한다.” (『황홀경의 신』(*The God of Ecstasy*))

## 자연적인 것이 “부자연스러운” 것이 되다

계급으로의 사회 분화 이전의 고대 종교는 집단적으로 지닌 신념을 자연에 관한 물질적 관찰과 결합하였다. 대중 종교로서 기독교는 로마 제국의 도시들 가운데 빈민 사이에서 실질적으로 시작되었고, 부유한 지배 계급에 대한 증오와 집단주의의 요소를 혼합하였다. 그러나 수백 년에 걸쳐, 기독교는 도시 빈민층의 혁명적 움직임에서 부유한 엘리트층의 시중을 드는 강력한 국교(國敎)로 변화하였다.

모든 형태의 트랜스젠더는 표적이 되었다. 허용될 수 있는 자기표현으로 간주된 것을 협소하게 한 것은 사실 사유재산, 남성 지배적 가족, 그리고 계급 분화의 발흥이었다. 자연적이었던 것은 그 반대라고 선언되었다.

노예에 기초한 로마의 생산 체계가 붕괴되면서, 이는 점차 봉건제로 대체되었다. 한때 사슬에 묶여 일한 노동자들은 이제 땅에 묶였다.

기독교는 도시 종교였다. 그러나 지배 계급은 아직 자신들의 새로운 경제 체계나 이를 옹호하려는 종교를 소작농 계층에 슬그머니 떠맡길 수 없었다. 이교도를 뜻하는 영단어 pagan은 라틴어 paganus에서 오는데, 이는 촌사람 혹은 소작농을 뜻한다. 이는 곧 잔혹한 계급투쟁에서 암호가 되었다.

봉건제의 발흥 이후에도, 옛 이교(異敎)의 자취는 남아있었다. 이는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 이성애를 가리지 않고, 성을 쾌활하게 긍정하였다. 많은 여성들이 이를 실천하는 사람들에 속했다. 많은 무당들은 아직 의상도착자였다. 그리고 의상도착은 아직 사실상 모든 시골 축제 및 제례의 일부였다.

중세의 우인제(愚人祭)<sup>25)</sup>에서, 평신도와 성직자 모두 여성의 복장을 하였다. 파리대학의 신학 교수진은 “여성의 복장을 하고 성가대석에서 춤을 춘” 사제들을 기록한다.

---

24) (역자주) 유스티니아노스 2세가 소집한 퀴니섹스툼 공의회(Quinisext Council)를 지칭하는 것으로, 여기서 인용된 것은 공표된 102개 조항의 교회법 가운데 62항이다. 영역본 전문은 <https://www.newadvent.org/fathers/3814.htm>에서 확인할 수 있다.

25) (역자주) Feast of Fools. 중세 유럽의 축일로, 성직자들 사이에서 위계를 바꾸고 가짜 주교, 대주교, 교황을 뽑아 의식을 해학적으로 모방하였다. 여러 성직자들이 규탄하였고 1431년 바젤 공의회에서 이를 금지하고 중형을 부과하였으나, 16세기까지도 존속하였다.

그러나 지주 가톨릭교회가 지배하기 위해선, 전계급적 공동 사회에서 이어진 오래된 신앙을 근절해야 했다. 이들이 토지의 사적 소유에 이익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트랜스젠더화된 이들을 향한 원시적인 공격은 아직 소작농 계층에 뿌리를 내리고 있었다. 의상도착은 시골의 문화생활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 많은 이교 지도자들은 트랜스젠더화되었다. 따라서 가톨릭교회가 남녀 의상도착자들을 뒤쫓아 이단 딱지를 붙이고, 소작농의 모든 의식과 축전에서 의상도착을 금지하고 진압하려 한 것은 놀랍지 않다.

11세기에 이르러, 서유럽 최대의 지주가 된 가톨릭교회는 오래된 신앙의 추종자들과 전쟁을 벌일 조직적, 군사적 힘을 획득하였다. 이 운동은 종교의 기치 아래에서 진행되었으나, 이는 더 오래된 공동 사회의 흔적에 대한 계급투쟁이었다.

## 잔 다르크

거의 모든 사람이 잔 다르크를 들어본 적이 있다. 그러나 잔 다르크가 남성의 복장을 그만 입기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19세였던 1431년에 가톨릭교회의 종교 재판에 의해 화형당했다는 것을 오늘날 아는 사람은 적다.

거의 500년이 지나 1920년에, 가톨릭교회는 세계의 혁명적 격변기에 교회와 관련된 유명한 인물이 필요했기에 “성녀 요안나”를 성인으로 공표하였다. 잔 다르크가 평민 출신이었기 때문에, 그는 아직도, 특히 소작농과 노동자 사이에서 어마어마하게 유명했다. 그러나 프랑스코회는 그가 의상도착자라는 사실, 그가 포기하느니 죽을 각오를 한 그의 정체성 표현을 물어버렸다.

잔 다르크는 소작농 계급의 문맹 딸이었다. 그가 자기를 표현할 자신의 권리를 지킨 용기는 민족국가 프랑스의 출현에 기여한 그의 군사적 통솔력만큼이나 걸출했다.

이런 놀라운 개성을 설명할, 그가 뿌리 내린 사회적 토양에는 무엇이 있던 걸까?

잔 다르크는 로렌 지역 동레미에서 1412년 즈음에 태어났다. 1348년에 시작된 가래톳 페스트는 봉건 질서의 근간을 갈라놓았다. 1350년이 되자 서유럽 인구의 절반이 죽었고 모든 지역의 인구가 감소하였다.

프랑스는 당시 백 년 전쟁에 휘말려 있었다. 잉글랜드 봉건 영주들의 군대는 프랑스를 거의 한 세기 동안 공격하고 있었다. 소작농들은 비적(匪賊) 같은 점령군의 약탈에 프랑스 귀족의 무거운 징세만큼이나 고통을 받았다.

소작농 계층이 당면한 문제는 프랑스 귀족이 할 수 없었던, 어떻게 잉글랜드 군대를 쫓아낼지의 문제였다. 그러나 큰 틀에서, 중요한 자크리(평민)의 난<sup>26)</sup>을 포함한 소작농 봉기는 유럽 봉건제를 철저히 뒤흔들고 있었다.

잔 다르크의 통솔력은 이 강력한 사회적 격변의 시기에 부상하였다. 1429년에 이 자신만만 한 17세 여성은 전통적으로 남성이 입은 의복을 입고, 프랑스 왕위의 계승자 샤를 왕자의 궁정에 자신의 추종자 무리와 나타났다. 그가 말한 목표는 프랑스 땅에서 점령군을 몰아낼 소작농 군대를 조직하는 것이었다.

종교는 봉건적 삶의 모든 측면에 스며들었다. 잔은 자신의 임무, 열의, 그리고 의복 양식이 신의 명령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잔은 만 명에 달하는 군대의 장수로 배치되었다.

1429년 4월 28일, 잔은 오를레앙을 향한 행군을 지휘하였다. 다음날, 그는 자신의 소작농 군대의 선봉으로 도시에 진입하였다. 5월 8일, 잉글랜드군은 참패하였다. 이후 몇 달에 걸쳐, 그는 사병(士兵)을 고무하는 능력과 더불어 자신의 군략가적 재능을 입증하기까지 하였다. 잔이 지도를 하자, 그의 군대는 다른 프랑스 마을과 도시를 해방시키고 잉글랜드군이 후퇴할 수밖에 없게 하였다.

잔은 그 뒤 샤를이 랭스<sup>27)</sup>로 가 왕위를 계승하도록 설득하였다. 아직 잉글랜드군이 점령하고 있는 지역을 거치는 길고 험난한 여정이었다. 그의 부대는 가는 길에 공세에 시달리고 굶주렸으나, 여정은 성공적이었고 잉글랜드군이 근거지를 더 내놓도록 압박하였다. 샤를이 프랑스로 왕에 즉위하자, 잔은 자신의 군기(軍旗)를 들고 그의 곁에 섰다. 곧 점령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될 민족국가 프랑스가 태어났다.

## 생포

잔은 콩피예뉴에서 잉글랜드 봉건 영주들의 동맹인 부르고뉴파에 의해 생포되었다. 그가 전투에서 생포된 기사 혹은 귀족이었다면, 샤를 왕이 그의 자유를 위해 몸값을 제안하는 것이 예상되는 관행이었다.

그러나 잔은 소작농이었다. 프랑스 귀족들은 지불을 거절하여, 자신의 오만함은 물론 그를 없애고 싶어 얼마나 안달이 났는지를 드러냈다. 대중적인 소작농 운동의 지휘관으로서, 그는 봉건 계급에 위협을 가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잉글랜드인들은 가톨릭교회가 의상도착으로 그를 규탄할 것을 촉구하였다. 잉글랜드왕 헨리 6세는 “얼마 전부터 푸셀(처녀) 잔이라 자칭하는 여자가 신법(神法)에 반대되고 신께서 역겨워 하시며 모든 법에 의해 금지된 바인, 드레스와 여성의 복식을 저버리고 남성이 입는 옷과 갑옷을 입었다는 것은 실로 악명 높고 잘 알려져 있다”고 썼다.

26) (역자주) Revolt of the Jacquerie. 백 년 전쟁 중인 1358년 여름 프랑스 우아즈주 보베에서 시작되어 몇 주 간 지속된 농민 봉기로, 농민들이 입는 누비 중백의를 귀족들이 "jacque"라고 하는 데서 명명되었다.

27) (역자주) Reims/Rheims. 프랑스 국왕의 대관식이 거행된 노트르담 대성당이 있는 도시이다.

1430년 11월, 부르고뉴파는 잔을 무서운 종교 재판에 인계하였다. 교회는 그에게 마법부터 말 절도에 이르는 70개의 혐의를 부과하였다. 이 혐의들은 그 뒤 12개로 압축되었다.

잔의 판관들은 그가 이교도로 자랐다고 고발하였다. 교회 지도자들은 그가 태어난 로렌이 이교와 마법의 온상이라고 기소하였다. 그곳의 소작농들은 여전히 옛 신앙과 모계 전통을, 잔이 살아있던 때까지도 고집하였다. 아이들에게 아버지가 아니라 어머니의 성을 주는 관습은 아직 존속하였다.

봉건 지주들은 농노로서 노예화되는 데 맞서 저항하는 꼬뮌나드<sup>28)</sup>들과 계속되는 전쟁에 얽혀있었다. 잔 다르크와 그의 출생지를 희생양 삼는 것은 이 반혁명 운동에 힘을 실어주었다.

1431년 4월 2일, 종교 재판은 마법 혐의를 취하하였다. 이를 입증하기는 너무 어려웠다. 종교 재판이 마법을 처리할 수 있는 전권을 갖게 된 것은 1451년에 이르러서였다.

## 의상도착의 죄

잔은 자신의 의상도착이 종교적 의무이며, 자신이 받은 계시를 교회의 권위보다 우위에 둔다는 주장 탓에 비난을 받았다. 다수의 역사가 및 학자들은 잔의 의상도착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그러나 그의 심문의 직접 의사록에 따르면, 법정 기록들은 판관들이 그의 의상도착을 불쾌해하며 그가 여성의 옷을 입을 것을 요구하였다고 밝힌다. 잔은 자신의 저항으로 자신이 패싹하게 여겨질 것을 알면서도 이를 거부하였다.

잔 다르크의 변론은 자신의 의상도착이 자신의 정체성에 얼마나 깊이 뿌리내려 있는지를 밝혔다. 그는 “그 무엇을 위해서도 나는 무장하고 남성의 옷을 입지 않겠다고 맹세하지 않겠소”라고 서약하였다.

잔은 고문실과 그 고통스러운 기구를 향한 끔찍한 여로에 내몰렸다. 그는 공동묘지로 끌려가 처형대를 보아야 했다. 박해자들은 자신에게 굴복하지 않으면 이 처형대가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이 심리적 고문과 산 채로 불타죽이겠다는 협박을 겪은 뒤, 1431년 4월 24일, 잔은 자신이 자연의 격식을 어긴 옷을 입었다고 자백하며 변론을 철회하였다. 그는 교회의 권위에 복종하고 여성의 옷을 입는 데 동의하였다. 그에게는 “자비롭게도” 여성복을 입고 무기징역을 살도록 선고되었고, 빵과 물이 주어졌다.

며칠 지나지 않아 그는 다시 남성복을 입었다. 판관들은 남성의 옷을 입는 것이 확실한 죽음을 의미하는 데 왜 그리했는지 물었다. 재판은 그의 답변을 기록하였다. “그는 자신의 의지로 말했다. 그리고 누구도 그리하라고 강요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는 여성의 것보다 남성복을 선호한다고 했다.”

---

28) (역자주) communard. 중세 유럽 전역에 있던 소규모 자치 공동체인 ‘코뮌’(commune)의 거주자, 지지자, 운동가 등을 아우르는 개념이다. 코뮌과 꼬뮌나드의 구체적 정의는 크누트 솔츠. **중세 유럽의 코뮌 운동과 시민의 형성**. 박흥식 옮김. 서울: 길, 2013 참조.

종교 재판은 “개가 자신의 토사물을 주워 먹듯, 그대는 다시금 빠져들고야 말았다”고 하며, 남성복을 다시 입은 죄로 그에게 사형을 선고하였다. 잔 다르크는 즉시 화형을 당했다.

왜 의상도착의 죄가 그리도 중요한가?

그 진짜 이유는 1431년 5월 14일 잔의 의상도착을 규탄하고 그를 이단으로서 태워죽일 것을 촉구한 파리 대학 교수진의 포고에서 찾을 수 있다. 이 교회 신학자들은 잔의 크로스드레싱이 “‘이방인들’과 ‘야만인’의 관습을 따르는 것”이라고 선언하였다.

교회는 이제 봉건 서유럽 전체를 하나의 정치 체제로 결속시킨 유일하고 강력한 기관이 되었다. 무엇보다도 교회는 가톨릭 세계의 영토 삼분의 일에 소유권을 주장하는, 단연코 가장 강력한 봉건 영주가 되었다.

종교 재판, 그리고 이후의 마녀 재판은 아일랜드에서 폴란드에 이르기까지, 충격적인 인명 피해를 입힌 테러와 대량 학살의 무기가 되었다. 다수의 레즈비언을 포함해, 오래된 농촌 종교를 추종한 많은 소작농 여성들은 마녀의 혐의를 받고 고문을 당해 타죽었다. 트랜스젠더화된 이, 게이 남성, 아랍인, 유대인, 과학자, 본초가(本草家), 치유자, 지배 계급과 교회에 이익을 제기하거나 의문을 품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위협으로 간주되어 박멸되었다.

이는 지주 계급의 반동 테러였다. 그 대상은 가만히 있지 못하고 반항적인 소작농 계층 및 자신의 계급 지배에 방해가 되어가는 신흥 소부르주아지였다.

고문은 규율이었다. 종교 재판관들은 단지 성경만으로 무장하고 나타나지 않았다. 그들은 소작농 봉기를 제압하기 위해 칼과 불을 들고 도래하였다. 봉건제의 압박한 붕괴는 반동의 압제를 고양할 뿐이었다.

## 트랜스젠더의 인내

그러나 수 세기에 걸친 이 살인적인 운동에도 트랜스젠더는 근절되지 않았다.

중세 이탈리아와 프랑스에는 “실정의 수도원”으로 알려진, 의상도착자 남성의 축제 관습이 실존하였다. 나오게오르구스<sup>29)</sup>는 『교황령』(*The Popish Kingdom*, 1570)에서 슈로브포트 축제 중 “남자와 여자 모두 옷을 벗고야, 남자는 처자 옷을, 그리고 음탕한 아녀자들은 남자같이 입고 길을 녀-든닌다(…)”<sup>30)</sup>고 기록한다.

29) (역자주) Thomas Naogeorgus(1508~1563). 독일 르네상스 시기에 활약한 인물로, 마르틴 루터에게 자극을 받았으나 그로부터 어느 정도 이탈하여 독일의 종교 개혁에 큰 영향을 미쳤다.

30) (역자주) 원문이 16세기식 옛말을 사용하므로, 국역도 부족하게나마 이에 맞추려 하였다. 뜻하는 바는 “남자와 여자 모두 옷을 바꾸어, 남자는 처자의 옷을, 음탕한 아녀자들은 남자같이 입고 길을 돌아다닌다”이다.

트랜스젠더는 지배 계급 내에도 존속했다. 예를 들어 스웨덴의 크리스티나 여왕이 1654년에 퇴위했을 때, 그는 남자의 옷을 입고 명칭을 ‘도나 백작’으로 고쳤다. 프랑스의 앙리 3세는 아마존의 복장을 하고 궁중의 신하들에게도 그리할 것을 권하기도 하였다고 기록되었다.

중세를 거쳐 초기 산업 자본주의에 이르기까지, 의상도착은 계급 지배에 저항하는 사회적, 정치적 봉기의 한 형태로서, 많은 전투적 몸부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예를 들어 1630년에, 메르 폴<sup>31)</sup>과 ‘그녀의’ 극단은 디종의 왕실 세리(稅吏)를 공격하였다. 1770년대 보졸레에서는 남성 소작농들이 여성의 옷을 입고 지주의 감독관들을 공격하였다. 1631년 윌트셔주에서는 스스로를 ‘조리돌림 부인’(Lady Skimmington)이라고 칭하는 남성들이 이끈 소작농 무리가, 왕이 자신들의 삼림지를 몰수(enclosure)하는 것에 대항해 폭동을 일으켰다. 1812년 4월, 여성복을 입은 두 방직공(‘러드 장군<sup>32)</sup>의 아내’)은 군중을 이끌고 스토포트의 직기(織機)와 공장을 파괴하였다. 1830년대와 1840년대에 도로세와 기타 법정(法定) 세금에 반대해 일어난 웨일스의 폭동은 ‘레베카’를 비롯한 여러 의상도착자들이 이끌었다. 1736년 에든버러의 포티어스 폭동<sup>33)</sup>은 여성의 복식을 한 남성들이 이끌었고, 그들의 남성 지도자는 ‘들불 매지’라고 알려졌다. 아일랜드에서 1760년대에 활약한 백의당은 영국 지주에 대항하는 투쟁에서 ‘옛적 서민을 부활시키고 다른 고층들을 바로잡기 위해’ 길고 흰 프록을 입었다.

토지에 기초한 기존 봉건 질서가 자본주의로 대체되자, 의상도착자 및 다른 트랜스젠더화된 여남의 존재 자체가 지하로 내몰렸다. 많은 이들은 살아남기 위해 반대 성으로 패싱할 것이 강요되었다. 의상도착자 여성은 남성으로 패싱하여 병사, 해적, 노상강도가 되었다. 그럼에도 의상도착은 명절 기념행사, 제의, 축제기간, 가장 무도회, 연극과 오페라를 통해 유럽 전역에 문화적으로 계속 나타났다.

이 트랜스젠더 전통들은 오늘날 광대 축제<sup>34)</sup>, 마디 그라, 할러윈에서 계속된다. 현대 제국주의 일본에서, 가로질러 젠더화된 역할은 고대의 노<sup>35)</sup> 연극이나 가부키 극에서 계속 중심부에 있었다. 그러나 이들은 전통의 자취에 불과한 것이 아니었다. 트랜스젠더화된 여남은 생존

31) (역자주) Mère Folle. “중세 이래 유럽 도시에서 번성한 평신도 단체로서 축제나 오락을 조직하고 도시의 풍속을 감시한 협회”를 “즐거운 협회”(société joyeuse)라고 하는데, 메르 폴은 “부르고뉴 공국의 수도였던 디종(Dijon)의 즐거운 협회”이자 그 회장을 일컫는 말이다. ‘미친 어머니’라는 뜻으로, 광기를 상징하는 복식을 취하고 광기를 핵심으로 한 퍼레이드와 연극을 벌였다. (윤선자. “르네상스 시기 디종 ‘메르 폴(Mère Folle)’의 상징과 담론 -광기(Folie)를 중심으로-.” 史叢(사총) 73 (2011): 203-237.)

32) (역자주) Ned Ludd는 1779년에 헛김에 양말틀 두 개를 부수었다고 전해지는 인물이다. 러다이트 운동은 그의 이름을 따 자칭하였고, 러드를 창립자이자 상징으로 삼았다.

33) (역자주) The Porteous Riots. 1736년 4월부터 9월까지 산발적으로 일어난 민란으로, 밀수꾼 앤드루 윌슨(Andrew Wilson)의 사형에 반대하며 작은 벌어진 소요에 에든버러 도시 경비대장인 존 포티어스가 발포를 명령하면서 격화되었다. 7월에 언도된 포티어스의 사형이 이후 사면 요청으로 인해 연기되자, 9월 7일 밤 에든버러 시민들이 감옥에 쳐들어가 포티어스를 끌어내 표지판에 목을 매달았다고 한다.

34) (역자주) Mummer's Festival. Mummers Parade라고도 하며, 필라델피아의 양력설 기념 퍼레이드이다.

35) (역자주) 能(のう). 가마쿠라 시대 후기에 발원하여 무로마치 시대 초기에 완성된 일본의 가무극(歌舞劇)으로, 출연자는 모두 가면을 쓴 남성이며 가부키와 달리 여성역의 배우도 고음을 사용하지 않는다.



을 위한 자신들의 투쟁이 얼마나 어렵건 간에, 계속해서 존재하였다.

## 세계의 트랜스젠더

우리의 초점은 유럽사에 있었고, 의식적으로 그래왔다. 반트랜스젠더 법안 및 태도의 책임은 그 대륙의 지배 계급의 어깨 위에 분명히 놓여 있다. 마녀 사냥과 종교 재판 당시 “고발된” 이들의 땅과 자산을 장악한 것은 지배 계급이 아시아, 아프리카, 그리고 아메리카 대륙으로 점령을 확장할 자본을 획득하게 해주었다. 그 뒤 유럽 엘리트층은 자신들이 세계 곳곳에 식민화한 사람들에게 자신들의 이념을 강요하려 하였다.

그러나 문화적 말살을 향한 식민주의자들의 인종차별적 시도에도, 의상도착 및 다른 트랜스젠더화된 표현은 억압받는 이들의 제례와 신앙에서 관찰될 수 있다. 이들이 서로 동떨어진 대륙의 문화에 속하는 수없이 다양한 사회들에서 존경받는 공적인 역할을 맡았음은 명확하다.

16세기부터, “의상도착적 무당들은 (...) 칠레 남부와 아르헨티나 일부 지역에 살고 있는 거대 부족인 아라우카니아 사람들 사이에서 보고되었고 (...) 의상도착적 남성 무당들은 서북베네수엘라와 북콜롬비아의 소 목축민인 과히라족, 그리고 아르헨티나의 수렵 채집민인 테우엘체족에서도 보고되었다.” (『구성』 (Construction))

“의상도착은 베트남의 시골 지역과, 버마의 무당들에 의해, 인도의 수렵민 파르디족 사이에서, 서남지역의 루사이족에 의해, 그리고 한국에서도 행해지곤 했다.” (『구성』)

종교 의식에 종사하는 트랜스젠더는 아직도 서아프리카 지역에서 보고된다. “아보네<sup>36)</sup> 신들 가운데 주신(主神)이 되는 신들 중 하나는 남자와 여자 양자가 혼합된 형상인 리사-마론이다. 대신(大神) 상고는 남성으로도 여성으로도 묘사될 수 있다. 그리고 현대의 브라질 무당은 ‘남자-여자’인 안산을 숭배한다.” (『차려입기』)

“케냐 메루족의 강력한 종교 지도자인 무가웨는 남성 정치 지도자들을 보완한다고, 따라서 여성적 자질의 귀감이 되어야 한다고 여겨졌다. 그는 여자의 옷을 입고 여자의 헤어스타일을 취했다. 그는 대개 동성애자였고, 간혹 남자와 혼인하였다. 앙골라 반투 지역의 경작민 및 목축민 부족인 콰야마족 사이에서, 많은 예언자, 선지자, 병의 진단자는 여자의 옷을 입고, 여자의 일을 하며, 다른 부인들이 여성인 남자의 첩이 되었다. 남아프리카의 줄루족 예언자는 주로 여자였으나, 대강 10퍼센트가 남성 의상도착자였다.” (『구성』)

특별한 종교적 중요성이 없는 듯 보이는 MtF 트랜스젠더는 케냐의 목가적인 난디족, 수단 의 덩카족과 누에르족, 에티오피아의 경작 민족인 콘소족과 암하라족, 누비아의 오토로족, 가나의 판티족, 앙골라의 오빔분두족, 짐바브웨의 통가족 농부들, 마다가스카르의 타날라족과 바라족, 세네갈의 월로프족, 우간다의 랑고족, 테소족, 기수족, 세베이족에서 보고되었다. (『구

36) (역자주) 원문은 Aborney이지만, 이에 대한 자료는 찾을 수 없다. 다만 현 베냉 공화국에 있던 다호메이 왕국의 수도인 아보메(Abomey)의 오기로 추측된다.

성』)

크로스드레싱은 서아프리카 종교에서 유래한 브라질 및 아이티 의식에서 아직도 특색으로 남아있다. (『구성』)

축치족, 캄차달족, 코랴크족, 이누이트족(북극분지의 모든 원주민)에는 여자의 차림을 한 남성 무당들이 있었다.

“인도에서, 크리슈나의 열성 신자들인 발라바 종파는 여자의 차림을 하였고 (….) 1870년대와 1930년대의 기록은 여자로 살며 옷을 입은 셀레베스의 사제(비썬)를 설명한다.” (『차려입기』)

그의 획기적인 책 『황금가지』(The Golden Bough)에서, 제임스 프레이저<sup>37)</sup>는 팔라우 제도에서 “여신이 여자가 아니라 남자를 자신의 대리인이자 계시를 받은 대변인으로 정하고 (….) 그는 여성의 의복을 입고, 목에 황금 조각을 지니며, 타노 평원에서 여자처럼 산고를 겪는다”고 적는다. 프레이저는 이 관습이 선주민 사이에서 만연하였다고 보고한다.

## 생존을 위한 패싱

유럽의 산업혁명이 보습을 무기와 기계로 주도할 무렵, 트랜스젠더화된 여남을 향한 편견은 착취의 태피스트리에 깊게 짜여 있었다.

그러나 상업 교역과 초기 산업자본주의는 거대한 농노 가족과 그 이웃들이 농촌에서 살고 일한 봉건제 아래에서는 거의 존재하지 않았던 익명성의 기회를 창출하였다.

자본주의는 소작농들을 땅에서 해방시켰으나, 이들을 임금 노예로 기계에 구속하거나 새로운 땅, 노동력, 자원을 정복하기 위해 군대나 함대로 보내버렸다.

트랜스젠더화된 여성뿐 아니라 [트랜스젠더화된] 남성들도 이제 패싱할 기회를 갖게 되었다. 자본주의 하의 여성 억압은 트랜스젠더화되지 않은 수천의 여성이 자신이 처한 억압의 경제적이고 사회적인 불평등을 벗어나기 위해 남성으로 패싱하게 만들었다.

패싱에 따를 수 있는 결과는 가혹했다. 17세기 말엽에 잉글랜드의 처벌은 칼을 차고 덮개가 없는 수레에 실려 거리를 끌려다니는 것이었다. 프랑스에서는 1760년까지도 의상도착자들을 태워 죽였다.

---

37) (역자주) James George Frazer(1854~1941). 스코틀랜드의 사회인류학자로, 현대의 신화학과 비교종교학에 큰 공헌을 하였다. 상기한 『황금가지』에서 그는 세계 각지의 마법과 종교에 관한 신념에서 나타나는 유사성을 정리하는데, 인용되는 부분은 1906년부터 1915년까지 12권 분량으로 출판된 3권의 6권 주석 4장 1절인 「여자의 차림을 한 사제들」(Priests dressed as Women)에서 발췌된 것이다. 3판은 국역본이 출간된 적이 없다.

형벌에도 불구하고, 여성은 유럽 전역에서, 특히 네덜란드, 잉글랜드, 독일에서 남성으로 패싱하였다. 17세기와 18세기에 패싱은 너무도 만연해, 이는 소설, 전기, 각색, 회고록, 예술, 극, 오페라, 대중 가요의 주제가 되었다.

17세기에 패싱한 가장 유명한 여성은 “소매치기 몰”(Moll Cutpurse)로 알려진 메리 프리스(Mary Frith)일 것이다. 이 대담한 인물은 17세기 런던 암흑가의 남성들과 싸우고 술을 마셨다. 그들은 그가 여자라는 것을 절대 알지 못했다. 그는 점을 치고, 장물을 매매하고, 지나가는 사람의 가방이나 지갑을 맡아주어<sup>38)</sup> 생계를 유지하였다. 여성이라는 게 밝혀진 뒤, 소매치기 몰은 자신의 일기를 출판하고 74세에 죽기 전까지 두 번 극화되었다.

앙젤릭 브뤼롱(Angélique Brulon)은 리베르테(Liberté)로 패싱하였고 1792년부터 1799년까지 유럽 대부분을 봉건제로부터 해방한 일곱 번의 전투에 복무한, 나폴레옹군의 서훈된 장교였다.

찰리 윌슨(Charley Wilson)은 1834년에 잉글랜드에서 캐서린 쿨스(Catherine Coombes)로 태어나 40년이 넘게 남자로 살았다. 63세 때, 윌슨은 강제로 구빈원에 보내졌고 성별이 발각되었다. 당국은 그가 푸른색으로 날염된 드레스와 빨간 술을 착용하게 하였다.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윌슨은 반복적으로 방문자에게 말했다. “내게 돈이 있다면, 난 여기서 남자 옷을 입고 나갈 거고 누구도 날 알아차리지 못할 거요.”

많은 여자들은 해적과 노상강도가 되었다.

트랜스젠더화된 표현은 남자들 사이에서도 지속되었다. 독일 사학자 요한 빌헬름 폰 알켄홀츠(Johann Wilhelm von Archeholz)는 포도송이(the Bunch of Grapes)라고 불린 1770년대의 런던 주점을 묘사한다. “그 곳에 들어가자 경비는 여성복을 입은 두 사내를 발견하였다. 머프와 넓은 술과 보닛 같은 매우 화려한 터번을 입고 있었다. (...) 클럽의 각 회원에게 여자의 이름이 있다는 게 밝혀졌다.”

1864년 파리의 의상도착자 무도회에는, “최소한 150명의 남자가 있었고, 그 가운데 몇은 너무 잘 가장하여 집주인이 그들의 성별을 알아차릴 수 없었다.” (『차려입기』)

트랜스젠더는 빅토리아 시대 잉글랜드에서 벌어진 가장 유명한 19세기 스캔들, 비어가 무리(Vere Street coterie)의 중심이었다. 이 1813년의 기록은 한 술집의 고객들을 서술한다. “단골의 대다수는 여성의 드레스는 물론 여성의 호칭까지 썼다(...)” 홀링웨이(Hollingway)는 경찰이 그들의 모임 하나를 습격하였으나 고객 가운데 최소한 한 사람에게 제대로 속아, 그가 경찰과 치안 판사들에 의해 여자로서 석방되었다고 한다. (『차려입기』)

만연한 트랜스젠더 “클럽”에 관한 이런 많은 기록들은 19세기 빅토리아 시대의 런던에서

38) (역자주) 원어는 relieve. 일반적으로 ‘덜어주다’, ‘경감하다’라는 의미가 있지만, 익살스러운 완곡어로 ‘뭔가를 훔치다’라고 읽어낼 수 있다.

보고되었다.

19세기 잉글랜드의 한 유명한 사건은 1890년 4월 28일 스트랜드 극장 밖에서 일어난 스텔라 (어니스트) 볼튼(Stella (Ernest) Boulton)과 패니 (프레드릭) 파크(Fanny (Frederick) Park)의 체포이다. 그들은 “중범죄 모의”라는 죄목으로 심리가 이루어졌다. 볼튼의 어머니는 자식의 변호를 위해 증언하였고 그가 6세 때부터 여자아이 차림을 하였다고 설명하였다. 스텔라와 패니 모두 무죄 방면되었다.

남자가 여자로 패싱하는 것보다 여자가 젊은 남자로 패싱하는 것이 생물학적으로 더 쉽긴 하지만, 많은 트랜스젠더화된 남성이 발각되지 않고 성공적으로 살았다.

예를 들어 내쉬 부인(Mrs. Nash)은 다코타 준주의 미드 기지의 병사와 결혼하였다. 남편의 전근 이후, 내쉬 부인은 다른 병사와 결혼하였다. 그가 죽은 뒤, 그가 남자였음이 밝혀졌다. (『기득권』 (Vested Interests))

## 자본주의가 오랜 편견을 줬다

자본주의의 초기 경쟁적 단계에, 부르주아들이 봉건제와 이념적 짐과 싸우고 있을 때, 그들은 세계와 사회에 관한 그들의 계몽되고 과학적인 관점을 자랑하였다.

그러나 권력을 잡자, 자본주의자들은 오랜 편견의 다수, 특히 자신의 분할 통치 정책에 부합하는 것들을 이용하였다.

“자유, 박애, 그리고 평등”은 지옥 같은 착취가 벌어지는 작업장이 공장 제도로 확장되자 곧 사문화되었다. 식민화된 이들은 부의 생산에 소모될 소재로 간주되었다. 새로운 지배 계급이 자리를 잡자, 이들은 임금 노예제의 체제에 순응할 것을 요구하였고 자신의 급진주의를 집어던졌다.

그러나 오랫동안 “불법”과 “부자연”이라고 명명되고 여기에 “비공식적” 사형까지 여전히 짊어지면서도, 의상도착은 여전히 인간의 표현의 일부이다.

의상도착자들과 여러 트랜스젠더화된 이들은 1880년대 독일에서 시작된 게이 해방의 첫 번째 물결의 지도자였다. 그 운동은 사회주의 대중 정당에 속한 다수의 지지를 누렸다.

1880년대 독일의 게이 해방의 첫 번째 물결의 유대인 게이 지도자인 마그누스 히르쉬펠트(Magnus Hirschfeld) 역시 의상도착자라고 보고된다. 그는 이 주제에 시원적인 작업을 저술하였다. 이 운동이 역사상의 트랜스젠더에 관해 폭로한 대부분의 값진 문헌은 레즈비언 및 게이 남성에게 관한 연구와 함께, 나치에 의해 장작더미 속에서 불타고 말았다.

## 보이지 않도록 만들어진 삶

우리가 본 대로 트랜스젠더화된 표현은 언제나 서반구에 존재해왔지만, “패싱”해야 할 필요는 자본주의의 도래와 함께 물가에 쓸려 왔다. 많은 여남은 패싱할 것을 강요당했다. 그들의 목소리 일부는 기록되었다.

데보라 샘슨(Deborah Sampson)은 미국 독립 전쟁에서 남성 병사로 패싱하였다. 그는 발각을 피하고자 자신의 허벅지에서 탄환을 뽑아내기도 하였다. 그는 이후 『여성적 검토』(*The Female Review*)라는 회고록을 출간하고 1802년에 순회강연을 다녔다.

샌프란시스코의 첫 멕시코 영사의 딸로 태어난 잭 비 갈랜드(엘비라 무가리에타, Jack Bee Garland/Elvira Mugarrieta)는 1897년 캘리포니아주 스톡턴에서 “남성복으로 가장”이라는 죄목으로 경찰에 의해 구금되었다. 한 달 뒤 사교적이고 거침없는 갈랜드는 스톡턴 총각 클럽의 명예 회원이 되었다.

1829년에 뉴욕주에서 태어난 루시 앤 롭델(Lucy Ann Lobdell)은 유명한 사냥꾼이자 덧사냥꾼이었다. 그는 어린 딸을 자신의 부모 곁에 남겨두고 “사나이의 세계”에 조셉 롭델 목사(Rev. Joseph Lobdell)로서 나아간 자신의 고통스러운 결정을 설명하였다.

“나는 남자들의 일을 하는 데 익숙했기에, 일을 찾고자 남자들의 옷을 입기로 마음먹었다. 더 열심히 가사를 하고 주에 고작 일 달러를 받을 수도 있고, 남자들의 일을 하고 남자들의 임금을 받을 수도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나는 여자가 처한 모든 구속을 겪고, 유행의 목소리에 따르고, 죽음의 품에서 죽는 데 복종할 수 없다고 느꼈다. 나는 어머니이다. 나는 내 자식을 말로 전할 수 있는 것보다도 더 사랑한다. 내가 죽어서 그 작은 것이 내가 해야 했던 것처럼 살겠다고 온갖 길로 몸부림치게 둘 수는 없었다.” 롭델은 수용소에서 죽었다.

해리 고어먼(Harry Gorman)은 1903년 버팔로에 입원되기 전까지 20년도 넘게 남자로 살았다. 이 담배를 씹어대는 40살 먹은 철도 요리사는 자신이 여자 옷을 입도록 하는 건 “누가 고용하더라도 안 될 것”이라고 단언했다. 고어먼은 최소한 10인의 다른 여자가 “남자처럼 입고 완전히 남자 같이 보이며 달리 의심받을 일이 절대 없으며, 이들도 같은 철도 회사에 고용되어 있다. 이들 중 일부는 집꾼, 역무원, 전철원 등이다. 이들은 서로 만나 인류의 한 계급에서 다른 계급으로 자신들의 전이가 성공한 것을 가지고 적잖이 웃음거리로 삼고는 했다”고 언급하였다. (『게이 미국사』 (*Gay American History*))

코라 앤더슨(Cora Anderson)은 자신의 성별이 밝혀진 뒤 1914년 밀워키에서 “풍기문란”의 혐의로 소환되기 전까지 13년간 랄프 커위니어(Ralph Kerwinieo)로 살았다. “여자의”의 복을 입도록 법원이 명령하자, 남아메리카 인디언인 앤더슨은 명백히 밝혔다. “다가올 세기에 여자는 제 몸의 주인이며 제 닢의 관리인이리라. 그러나 그때가 될 때까지 여자들에 [관한] 상(像)은 전부 틀릴 것이다. 보살핌을 잘 받은 여자는 기생충이며, 일해야만 하는 여자는 노예이다. 여자의 최저 임금은 도움이 되겠지만, 완전한 해법이 되지도 않고, 될 수도 없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남자들에게 적대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다. 나는 오직 조건들, 남자들이 만든

이 세계에서 자라난 조건들에 적대적일 뿐이다.” (『게이 미국사』)

남자로 살기 위한 제임스 맥해리스(애니 리 그랜트, James McHarris/Annie Lee Grant)의 투쟁은 『에보니』의 1954년 기사에 기록되어 있다. 무관하고 사소한 혐의로 미시시피에서 체포된 맥해리스는 시장과 경찰 앞에서 옷을 벗어야 했던 일을 견뎌야 했고, 남자 구치소에 구금되었다.

의상도착은 미국과 유럽의 희곡과 희극에서 계속 변창하였다. 가로질러 젠더화된 공연들은 19세기 미국의 벌레스크와 보드빌에서 중추였다.

1920년대와 1930년대의 블루스 전통은 마 레이니의 “Prove It On Blues”와 베시 잭슨의 “B-D Women”(볼대거 여자) 같은 노래에서, 도시의 아프리카계 미국인 공동체 내 트랜스젠더화된 표현에 관한 가사를 포함하였다.

트랜스젠더화된 역할은 아직도 텔레비전과 영화, 연극, 문학, 춤과 음악에서 (무엇보다도 대개 “우스개”로) 나타난다. 그러나 존엄과 공경 속에서 살고 일하려는 트랜스젠더화된 이들을 향한 사회적 처벌은 여전히 잔혹하고 흔히 폭력적이다.

## 편견과 싸운 크리스틴 조겐슨

마취의 개발과 호르몬의 상업적 합성은 이번 세기의 비교적 최근 발견이다. 이 비약적 발전은 개인들이 자신의 젠더에 합치하고자 자신의 성별을 바꿀 가능성을 열어주었다. 그 이래, 이 나라만 해도 수만 명의 성전환자들이 크리스틴 조겐슨(Christine Jorgensen)이 내린 것과 같은 결정을 하였다.

크리스틴 조겐슨이 처음으로 성전환을 한 사람은 아니지만, 그는 단연 잘 알려진 인물이다. 그는 1989년 5월 3일, 암 투병 후 62세의 나이로 숨졌다. 조겐슨은 주류 매체들의 부고란에 조지 조겐슨(George Jorgensen), 크리스틴이 되고자 1950년대 초반에 덴마크로 떠난 브롱크스 태생의 전직 군인이자 사진작가로 기억되었다. 가장 처음으로 기록된 성전환이었다.<sup>39)</sup>

이런 기록은 그의 인생에 중대한 결정을 둘러싼 “세계적인 야단법석”을 인정하나, 그가 “즉시 유명 인사가 되었다. 그는 강연 및 나이트클럽 순회를 다녔으며, 왕족과 유명 인사를 만났고 부자가 되었다”고 첨언한다. (『뉴욕일보』 (New York Daily News), 1989년 5월 4일)

연애 소설처럼 들리지 않나? 이는 조겐슨을 세계적인 조롱의 대상으로 삼은 매체들, 그리고

---

39) (역자주) 현재 기록이 남아있는 이들 가운데 최초로 ‘성전환 수술’, 즉 성기 변형 수술을 거친 인물은 도라 리히터(Dora Richter, 1891~?)이다. 이는 1931년 초반, 마그누스 히르쉬펠트의 성과학연구소의 중개로 이루어졌다. 조겐슨은 미국에서 최초로 성기 변형 수술을 받았고 당대 미디어에서 이를 “최초의 성전환”이라고 대서특필하였기 때문에, 파인버그는 이를 가리키고 있거나 착각한 것으로 보인다.

그들의 팬을 좌우하는 지배 권력의 순전한 위선이다. 그가 살아있는 동안 사회를 통제하는 그 누구도 크리스틴 조겐슨이 존중받아 마땅한 인간이라고 말하지 않았다.

조겐슨의 성전환 소식은 1952년 후반, 미국 사상 정치적 반동이 가장 심각한 시기에 언론으로 흘러들어갔다. 악명 높은 매카시 마녀사냥의 절정으로, 수백 명이 그저 정치적 견해 때문에 법원으로 끌려가 투옥된 때였다. 로젠버그 부부<sup>40)</sup>는 사형수 수감동에 앉아, 싱싱<sup>41)</sup>에서 전기의자형을 기다리고 있었다. 펜타곤의 폭격기가 한국에 폭탄을 떨어뜨리고 남태평양에서 수소 폭탄을 실험했다.

짐 크로우 법은 여전히 남부를 지배했다. 게이 남성과 레즈비언은 여전히 운동 없이 생존을 위해 싸우고 있었다. 의상도착은 “멀티 아저씨”(“Uncle Miltie”) 별<sup>42)</sup>이 박장대소를 위해 여장을 할 때에만 용인될 수 있었다.

크리스틴 조겐슨의 소식이 뜨자, 온갖 난리가 벌어졌다. 질겁한 뉴스 진행자부터 잔혹한 토크 쇼 호스트까지, 그는 인류에서 추방되었다고 보일 정도로 잔인하게 공격당했다.

중요한 사적 선택일 수 있었던 것은 적대적인 매체들에 붙들려 고약한 취급을 당했다. 그의 사적인 삶은 이제 자신의 것이 아니었다. 그는 집요하게 쫓겨다녔다. 조겐슨은 죽기 한 해 전 매체들에 전했다. “난 이제 그렇게 알아볼 만하지도 않다. 이제 내가 슈퍼에 가도 사람들은 내가 누군지 몰라서, 정말 좋고 나한테 딱 맞는다.”

“전에 그렇던 것처럼 아프지도 않다.” 그는 침언한다.

그는 어떻게든 호된 감정적 대가를 치르고 품위와 존엄을 지닌 채 살아남았다. 엄청난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다.

조겐슨을 향한 공격은 순응을 강제하기 위한 운동이었으나, 역사적으로 이게 성공하기에는 너무 늦었다.

조겐슨은 1986년에 언론에 밝혔다. “나는 내가 왜 그리 많은 관심을 받았는지 절대 이해할 수 없다. 이제 와서 돌아보면 그게 성 혁명의 시작이었고, 나는 어쩌다 방아쇠 구조 중 하나였을 뿐임을 알게 된다.”

---

40) (역자주) Ethel Greenglass Rosenberg(1915~1953), Julius Rosenberg(1918~1953). 미국에서 간첩 모의 혐의로 사형당한 부부이다. 둘은 당시 미국 공산당 당원이었고 베노나 프로젝트로 해독된 소련 암호에 의하면 이들이 간첩 활동에 관여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당시 둘의 사형 집행에 대한 국제적인 반대 여론이 일었고, 로젠버그 부부의 두 아들, 마이클과 로버트는 줄리어스가 법적으로 간첩 혐의에 유죄인 것을 인정하는 한편, 에델은 이조차 성립하지 않으며 재판이 검찰과 사법부의 비행으로 만연하다고 주장하며 현재까지도 사후 복권 운동을 이어가고 있다.

41) (역자주) Sing Sing Correctional Facility. 뉴욕주 오시닝에 있는 교도소로, 1826년에 개설되었다.

42) (역자주) Milton Berle(1908~2002). 미국의 코미디언. 1948년부터 1955년까지 미국의 코미디 버라이어티 쇼인 ‘Texaco Star Theater’의 진행자를 맡아 절정의 인기를 구가해, “멀티 아저씨”, “미스터 텔레비전”(“Mr. Television”)이라는 별명을 얻었다.

## 잔 다르크에서 스톤월까지

지난 몇 세기에 기술 발전은 남녀 간 직업 분할의 다수를 이제 쓸모없게 하였다. 여성은 노동 인구에 더 많이 참여하였고, 가장 적극적이고 즉각적인 차원에서 노동 계급의 일부가 되었다. 이는 완전히 새로운 의식을 형성하였다.

1952년에 처음 생산된 피임약은 많은 여성들의 사회적 관계를 사실상 변혁시켰고, 여성들이 남성들과 마찬가지로 원치 않는 임신으로부터의 자유를 누리며 삶의 모든 시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굳게 강제된 젠더 경계들 역시 철폐되어야 했다. 그러나 자본주의의 원동력은 여전히 분할의 수단으로 편견과 불공정을 사용한다. 이 잘못들을 바로잡기 위해 기념비적 투쟁이 필요했고, 더 큰 투쟁들은 여전히 지평선에 남아있다.

1950년대와 1960년대의 민권 운동과 전국적 해방 운동, 그리고 베트남전에 대한 격렬한 저항은 세상을 뒤흔들고 여성 해방 투쟁을 일으키는 데에도 도움을 주었다.

1969년, 뉴욕시 그리니치빌리지의 전투적이고 젊은 게이 의상도착자들이 스톤월 주점을 습격하려던 경찰에 맞선 싸움을 이끌었다. 싸움은 네 밤이나 이어졌다. 스톤월 항쟁은 다시는 벽장 문 뒤에서 침묵하지 않을 현대 레즈비언 및 게이 운동을 낳았다.

중세 봉건제의 소작농 봉기에서 20세기 스톤월 항쟁까지, 의상도착자와 다른 트랜스젠더화된 이들은 수많은 전투적 몸부림에, 개인적 표현의 권리를 옹호하기 위해서건 정치 항쟁의 형태로건 등장하였다.

그러나 거리의 폭력에서 경찰 폭력까지, 직업 차별에서 보건 의료와 주택 공급까지, 트랜스젠더화된 인구에게 생존은 여전히 싸움이다.

트랜스젠더화된 이들은 텔레비전과 영화의 잔인한 우스개의 주된 표적이다. 〈싸이코〉, 〈드레스드 킬〉, 〈양들의 침묵〉 같은 영화는 트랜스젠더화된 이들을 위험한 반사회성 인격장애자로 그리는 이미지를 만들어낸다.

〈양들의 침묵〉에서, 일종의 의상도착자이며 성전환자를 흉내 내는 인물이 자기가 쓸 여성의 몸을 바느질하고자 여자들을 죽이고 피부를 벗긴다. 영화는 현실을 뒤집는다. 처참한 살인의 피해자는 사실 의상도착자와 성전환자다.

이러한 논점을 제대로 인식시킨 것은 1992년 봄에 전미 비평가 협회 시상식을 방해한 활동가들이었다. 이들은 다큐멘터리 〈파리 이즈 버닝〉에 출연한 성전환자 비너스 엑스트라바간자(Venus Xtravaganza)의 실제 피살을 강조하는 전단을 나눠주었다. 엑스트라바간자는 할렘의 드랙 무도회에 관한 이 영화가 완성되기 전에 살해당했다.



〈양들의 침묵〉은 아카데미상을 휩쓸었다. 〈파리 이즈 버닝〉은 후보에 오르지도 못했다.

## 더 나은 세상을 위한 싸움

우리가 오늘날 마주하는 제도화된 편견과 억압은 언제나 존재하지는 않았다. 이들은 착취자와 피착취자로 사회가 분할되며 나타났다. 분할 통치 기술은 노동 계급이 창출한 부의 단물을 노예 소유주, 봉건 지주, 기업 지배 계급이 가질 수 있게 하였다.

인종차별주의 및 모든 종류의 편견처럼, 트랜스젠더화된 이들을 향한 편견은 치명적인 발암 물질이다. 우리는 서로를 협력자로 보지 못하게 하고자 서로를 상대로 싸움 붙여지고 있다.

연대의 진정한 결속은 서로의 차이를 존중하고 함께 적과 싸울 의지가 있는 사람들 사이에 서 빛을 수 있다. 우리는 세상의 일을 하고, 이를 변혁할 수 있는 계급이다. 우리는 진짜 해방을 이룰 수 있다.

견딜 수 없는 조건에 대항하는 투쟁은 세계적으로 대두되고 있다. 그리고 오늘날의 반격 운동에서 트랜스젠더화된 여남 및 청년들의 전투적 역할은 미래를 설계하는 데 벌써부터 도움을 주고 있다.

## 참고문헌

- ❖ Peter Ackroyd, *Dressing Up—Transvestism and Drag: The History of Obsession*, Thames and Hudson, London, 1979.
- ❖ Arthur Evans, *The God of Ecstasy—Sex-Roles and the Madness of Dionysos*, St. Martin's Press, New York, 1988.
- ❖ —, *Witchcraft and the Gay Counterculture*, Fag Rag Books, 1978.
- ❖ Marjorie Garber, *Vested Interests—Cross-Dressing and Cultural Anxiety*, Routledge, New York and London, 1992.
- ❖ Gay American Indians, *Living the Spirits*, St. Martin's Press, New York, 1988.
- ❖ David F. Greenberg, *The Construction of Homosexuality*,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Chicago and London, 1988.
- ❖ Jonathan Katz, *Gay American History*, Harper & Row, New York, 1976.
- ❖ *The Trial of Joan of Arc*, W.S. Scott, ed., Associated Booksellers, 1956. (서문과 각주가 달린, 오를레앙 필사본의 직접 의사록의 번역본)